

데스크시각



송기동 문화2부장·편집부국장

남편: “대체 당신은 매일 어딜 나가는 거요. 체면도 좀 생각해야지 않소?”
 애순: “그럼 날 방안에서 꼭 가두어 두시 구려. 나는 조롱에 든 새는 아니깐요.”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대사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83년 전, 일제 강점기인 1936년에 개봉된 영화 ‘미몽’(迷夢)(감독 양주남)에서 부부간에 오가는 대사다. ‘미몽’은 현재 영상 자료로 남아 있는 한국 영화 가운데 가장 오래된 발성영화이다. 지난 2004년에 중국 전영(電影)자료관에서 극적으로 발굴됐다.

시대에 저항한 ‘나쁜 영화’

지난달 29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ACC) 극장3에서 영화 ‘미몽’이 상영됐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마련된 ‘한국 나쁜 영화 100년’ 특별 기획전을 통해서다. 화면은 디지털 복원을 했지만 워낙 오래돼 흐릿하고, 음성은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한국영화가 첫걸음

한국영화 100년, ‘새로운 물결’을 위하여

을 땀지 17년이 지난 즈음에 만들어진 초창기 작품이라 새로웠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피아골’과 ‘바람 불어 좋은 날’ ‘서울애수’ ‘상계동 올림픽’ 등 36편의 영화가 ACC와 광주극장 및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각각 상영됐다.

기획전 타이틀로 내건 ‘나쁜 영화’는 중의적이다. 영화를 수용하는 대중들에게 ‘나쁜’ 영화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눈에 ‘나쁜’ 영화였다. 영화 ‘피아골’(감독 이강진)은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에 만들어진 영화다.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1955년 10월 4일자에는 ‘영봉(靈峰) 지리산에서 결사적 촬영 감행! 애원(哀怨)의 골짜기 피아골에서 피와 사랑의 비극’이라는 문구를 앞세운 광고가 게재됐다. 영화는 전북도경과 내무부 치안국의 허위를 받아 완성됐지만 ‘빨치산은 인간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상영 불가 위기에 놓였다. 결국 제작자는 문제된 장면을 삭제하고, 마지막 장면엔 필러라는 태극기를 추가해 상영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2007년에 ‘피아골’ 영화 오리지널 필름은 등록문화재 346호로 지정됐다.

한국영화 100년사는 ‘검열’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발자취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의 가위질에, 해방 이후에는 군사독재정권의 가위질을 피해야 했다. 광주극장에는 검열 경찰관을 위한 특별 좌석인 임검석(臨檢

席)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시대의 목소리를 담은 의미 있는 작품들이 탄생한 것은 오로지 작가정신에서 비롯됐다. 유신체제 막바지인 1979년, 38살의 나이로 요절한 하길중 감독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영화를 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영화(그것은 훗날 언젠가 밝혀지겠지만)를 만드는 것이 정책적으로 허용이 안 되며 내가 배워 온 영화 기술을 이식하기에는 이곳의 시설은 너무나 전근대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길중 평론집 ‘사회적 영상과 사회적 영상’ 중)

군사독재 정권의 탄압과 검열 속에서 ‘결작’이 만들어진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장호 감독의 ‘바보선인’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시나리오 사전 검열을 받던 당시에 ‘어둠의 지식’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었고, 정권에서 기피하는 원작자 이름을 밝힐 수 없었다. 감독은 ‘영화판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기존 영화 문법을 벗어난 영화를 만들었다.

이장호 감독은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 “그거 사실 내가 만든 영화가 아니다. 나는 영화를 포기하고 자살하는 심정으로 만들었는데 이 영화를 만든 에너지는 전두환 정권하고 영화 정책에서 나왔다. 그것이 이 영화를 만드는 힘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장호 감독의 마스터클래스’ 중)

지난 6월 이장호 감독은 월간 ‘예향’과의 인터뷰에서 “과거가 ‘검열’과의 싸움이었다면 현재는 ‘자본’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자본’의 낙점을 받지 못한 영화들은 제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영관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이 감독은 ‘독립영화’에서 한국영화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작가정신’과 ‘영화의 다양성’이다.

‘작가정신’과 ‘다양성’으로

한국영화 100년의 선물인 듯, 지난 5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앞으로 한국영화가 ‘작가정신’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영화 문법으로 창작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젊은 독립영화 감독들이 한국영화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으면 더욱 좋겠다. 새로운 한국영화 100년 역사가 이제 다시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에 앞서 추석의 한국 고전영화를 보고 싶다면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KMDB)를 찾으면 된다.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데 193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50여 편에 대해 VOD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가운데 100편은 이달부터 고화질 HD로 감상할 수 있다. /song@kwangju.co.kr

기고

광주(남구)와 혁신도시, 상생의 길

주·전남이 전국 최초의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로 지정되고, 핵심 코어 지구에 남구의 도시첨단 국가산단과 에너지밸리 지방산단이 포함되어 앞으로 에너지 특화 기업의 유치가 용이해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균형 해소는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다. ‘지역과 상생 발전’이라는 취지에 따라 광주의 불만도 해소해야 한다.

첫째, 현재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산단에 한전 ‘종합교육 연수시설’의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교육 연수시설 건설 시 투자비 1500억 원, 생산 효과 5000억 원, 8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각종 세미나, 워크숍, 교육 등에 매년 2만 명 이상이 참석해 연간 2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남구의 농산물을 위 시설에 납품할 수 있으므로, 농산물 시장도 활성화 될 것이다. 한전 KPS도 분사 인건에 그럴싸한 교육원을 짓지 않았는가?

둘째,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이는 1조 2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미래를 좌우할 최첨단 기술 집합체다. 최

소 1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 5조 원 전후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시작됐다. 광주·전남이 원팀이 되어 노력해야 한다. 한전공대와 연계하여 유치 전략을 펼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셋째, 한전공대를 비롯, 연구기관, 관련 기업 등이 집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장기적으로 ‘전략연구원’의 이전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이다. 전략연구원 이전해 온다면 투자비 3000억 원, 생산 효과 1조 3000억 원, 고용 2만 5000명의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한전 배구단’의 문제다. 배구단 유치에 대한 광주 체육인들의 열망은 생각보다 강렬하다. 그런데 남자 배구단의 연구지 유치는 수원과의 경쟁, 수도권에 근거지를 둔 배구 선수들의 성향 등을 보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여자 배구단의 창단을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광주와 혁신도시를 잇는 ‘광역 철도망’을 연결해야 한다.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2호선은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만 자신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를 광역 철도화하여 남구 대촌을 지나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것이다. 이게 완공되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주민들의 광주 접근성이 용이해져, 동구의 아시아 문화전당은 물론 남구 일대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나주나 전남도가 광역 철도 건설로 혁신도시의 경제력이 광주로 흡수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단견일 수밖에 없다. 광주와 교통이 편리해지면 자연히 사람들은 혁신도시로 들어와 살게 된다. 마치 성남의 분당, 판교와 화성의 동탄이 그러듯이. 그러나 만약 지금까지 교통이 불편하고 혁신도시에 갇혀 살아야 한다면 혁신도시 인구가 늘어날 리 없다.

결국 광역 철도망이 건설되면 광주와 혁신도시가 서로 상생 발전할 것이고, 이는 ‘소통의 도로’가 되어 혁신도시를 둘러싼 광주와 전남도의 갈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상 살펴본 사업들은 단 하나도 쉬운 것이 없다. 그러나 명분이 있다면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광주와 전남, 한전은 더 이상 근시안적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정희 한국전략심리감사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계속 불협화음을 내며 삐걱대 왔다. 시장과 지사가 만났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과 광주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이다. 광주는 한전과 한전공대를 전남에 양보하거나 빼앗기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다. 실제 광주의 인사들을 만나면 ‘한전이 광주를 위해 한 것이 뭐가?’하고 서운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광주는 혁신도시의 간접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전은 해마다 김대중센터에서 빅스포(BIXPO)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광

시민 배우가 만드는 ‘시민 영화제’를 상상한다

페막작으로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에 저항하는 지식인들의 노력을 다룬 ‘나고야의 바보들’이 선정됐다. 독립영화제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우리 사회와 역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며, 시대 의식을 다룬 작품들이다. 이 또한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다 인간이 행복해지고, 인권이 신장하는 길로 만드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문화 단체인 ‘희망문화 협동조합’은 시민 연극 교실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최근 ‘우승씨의 주부 일기’라는 연극을 시민 배우들이 작품을 쓰고, 연기하여 공연을 하였는데, 생활 속의 양성 평등 사회를 다룬 내용이다. 또 광주 문흥동에 있는 ‘연극마을 문화공동체 협동조합’은 일신아파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의 지하 공간을 활용해 ‘마을 소극장’을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연극과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다. 광주 광산구 분광동에서는 작년에 신흥마을 주민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 필름메이저와 힘을 합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한 ‘소원꽃’이라는 영화를 제작하여 ‘노동 더하기 축제’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이런 많은 노력들은 모두 우리 생활 속에서 연극과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공동체의 행복을 밝히는 시도들이다. 사람들은 살면서 자신이 배우가 되거나, 영화 스크린으로 올라가는 상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 실제 마을 영화 ‘소원꽃’을 준비하고 있는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필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보였다.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해 만든 영화들이 ‘아시아 문화전당’ 스크린에 올라가고, 지역 극장들에서도 상영이 된다면 그 감동이 훨씬 커질 것이다.

5·18의 시민 참여 정신을 문화 도시에 반영하고자 하는 광주 문화 도시 사업은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현장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배우로 나서고, 지역의 문화산업 단체들이 지원하면서 시민 영화를 만들고, 그 시민 영화들이 아시아 문화전당과 지역 극장에 상영될 수 있는 범시민적 기획을 해 보면 좋겠다. 그 소재들은 우리 시대와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일정한 가치적 담론을 담은 내용이면 좋겠고, 그 영화들로 인해

우리 사회가 역사 발전으로 한단계 전진하는 성과를 남기길 바란다.

자치단체나 문화재단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시민주 동참도 이끌어 내고, 기업들의 사회 공헌도 함께하여 범시민적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 특히 다양한 시민 운동 현장과 마을 공동체의 아가자 기한 내용들이 다루어지면 더욱 감동이 클 것이다. 시민 영화제 공모로 지역 시민단체나 마을 공동체, 직장 모임 등에서 응모하게 하고, 선정된 공동체와 문화 전문기관들이 협약을 맺어 시나리오와 배우 및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비롯한 지역 극장과 공동체 현장에서 상영하게 한다. 선정된 작품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함께 공유되면 더욱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영화가 되고, 다시 그 영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노력들이 매년 쌓여 가면 광주는 시민들의 삶이 비약적으로 행복해지는 체감 효과를 누리게 되고, 새로운 문화 산업의 블루 오션을 만들어 문화 교육과 창조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社說

폭언·갑질 공직사회 인권 침해 여전하다니

자치단체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공공기관이 공익 제보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등 광주·전남 공직 사회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그제 주요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 지역 A군수는 2017년 10월 직원 대상 양성 평등 교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뿜었고,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를 되풀이했다. 그는 또 성폭력 예방 교육에서 강사를 소개하며 “허리 24는 매력 포인트”라며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A군수에게 사이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전남의 한 공공기관에서는 뇌물양으로 질병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진짜 아픈 것 맞느냐”며 추가 진단서를 요청하고 특별 감사 조사까지 받도록 강요했다. 그런

가 하면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도 등은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이름 등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가 인권위의 지적을 받았다.

이들 사례를 포함해 광주인권사무소에 올해 접수된 지자체와 공직 유관 기관 관련 진정 사건은 58건이나 됐다. 전체 721건 가운데 구급 시설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병원 163건, 경찰 117건, 사회복지시설 111건 등으로 이들 시설이 여전히 인권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을 반영했다. 주요 진정 내용은 욕설과 폭언, 신체 자유 제한, 직장 내 갑질 등이었다.

조사 결과 과거와 달리 가혹 행위는 사라졌지만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모범이 되어 할 공직 사회에서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관별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인권 보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5·18조사위’ 출범 전 꼼꼼한 준비 필요하다

5·18 40주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날의 진상은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학술 책임자들은 물론 부인도 없었다. 그들을 옹호하는 일부 세력들은 왜곡과 폄훼를 일삼는 사이, 애꿎은 세월만 가고 있다.

2년의 허송세월 끝에 조만간 출범하게 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또 문제는 있다. 조사위가 출범하더라도 조사위 실무 활동을 담당할 조사관과 전문위원 선발·교육에만 또다시 반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광주시와 5·18기관 등은 현재 진상 규명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조사위 출범에 대비한 자체적인 진상 규명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 조사위 출범 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미리 진상 규명을 위한 준

비나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5·18 조사위원들은 임명과 동시에 정부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실무 담당할 조사관 34명을 공모하고, 10명 안팎의 전문위원은 자체 선발하게 된다. 한데 조사위원이 임명된 후에도 공모·선발 절차에 들어가는 탓에 조사위 활동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 조사관과 전문위원 등 실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직무교육 등에 최대 6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도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사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이를 이수하는 조건으로 조사관과 전문위원 등을 뽑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리 있는 제안이다. 광주시에서는 또한 조사위 출범과 함께 어떤 기관이 대표성을 갖고 조사위를 지원할지 등에 대해 한시 바빠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내 방직업체 1위인 전방(옛 전남방직)과 3위인 일신방직은 원래 한 회사였다. 뿌리는 일본 가네보가 1935년 설립한 종연방직이다. 가네보는 목화 공급의 최적이던 전남에 공장을 설립했다. 1930년 학동 현 삼익사리막 자리에 실을 뽑는 제사공장을 지은 데 이어 5년 후 입업시험장이 있던 임동에 방직공장을 설립했다.

1960년대 전방은 종업원 6000명으로 국내 1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70년대 중반에는 전방 계열사인 한일합성사 단일 기업 최초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70년대 후반 산업 중심이 전자와 석유화학으로 넘어가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방은 공장 가동 83년 만인 2017년 11월 임동 공장의 문을 닫았고 일신방직은 현재 임동 공장 일부 시설만 가동하고 있다.

임동 방직공장

장업 초기 종연방직은 방직기 3만5000추, 직기 1440대, 종업원 3000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였다. 종업원 기숙사를 운영했는데 생활 편의보다는

공단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광주시에 임동 공장부지 개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8만

가혹한 노동으로 인한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탈하는 ‘여공’을 채우기 위해 소녀들을 강제로 데리고 일을 시키는 인권 유린도 자행했다. 일제가 패망하자 미군정은 1951년 전남방직으로 회사명을 바꾸고 미군 통역관으로 일하던 김형남 등 3명에게 불하했다. 하지만 김형남이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는 것을 놓고 김용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1961년 두 개 회사로 분리됐다. 전남방직은 김용주가 맡고 일신방직은 김형남이 운영하기로 했는데, 종업원과 공장 건물 심지어 담장까지 반반씩 나눴다.

8000명에 달하는 부지 활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제 수탈과 여공들의 눈물이 밴 근대 산업유산인 만큼 주요 시설과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사유지라 시민들의 요구대로만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결국 기업과 광주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개발 이익보다는 공공 기여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성장 과정을 되돌아본다면 말이다. /장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